

수출입 중기 87.6% “1년 이상 물류난 지속될 듯”

내년 수출 전망에 40.4%가 “좋다” 응답 · 수출 리스크로 물류애로가 61.2%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과 관련하여 좋다는 응답은 40.4%로 나쁘다는 응답 5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수출실적과 관련해서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4%로 감소한 것 이라고 응답한 29.4%보다 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수출 리스크는 ‘물류애로’ (61.2%), ‘원자재 가격 상승’ (47.8%), ‘유통망이 없는 수입국’ (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탄소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있다는 질문에는 95.4%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만 대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으로는 ▲신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다각화 (56.5%)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제고(52.2%) ▲ 기존 거래처 관리 강화(34.8%)로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수출 화물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지원(72%)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인 대상 출입국 제한 완화 (36.2%)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2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출입 물류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83.4%로 나타나 지난 상반기(6월) 73.4%에 비해 10%p가 상승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해운·해상 운임 상승(83.7%)이 가장 컸으며, ▲선적 시기 지연(65%) ▲컨테이너 부족(43.2%) ▲선박부족(41%)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97%로 수입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18%로 나타나, 지난 상반기(6월) 조사에서 수출 평균 6.84% 수입 평균 8.04%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운임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이상~10%미만(35.8%)이 가장 많았으며, ▲5%미만(35.6%) ▲10%이상~15%미만(15.2%) ▲영향없음(7.6%)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항로에 대해서는 ▲미주 서안(59.8%) ▲미주 동안(47.6%) ▲유럽(30.4%) ▲동남아(26.6%) 순으로 나타났다.

해운물류난 지속 예상 기간으로는 ▲2022년 하반기(57.6%)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2023년 상반기(21.4%) 순으로 나타나는 등 87.6%의 기업이 최소 1년 이상 물류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대응책으로는 선박 확보 및 운임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 참여(44%)가 가장 많았으며, ▲선적일자 연기 및 바이어 납품기간 조정(30.8%) ▲내수 비중 확대(10.2%) ▲FOB-CIF 등 무역조건 변경(8%)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안 없음(16.4%)으로 응답한 기업도 많아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입 물류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운임지원 확대(47.8%) ▲선박 추가 투입(42.6%) ▲컨테이너 확보 지원(19%) ▲화물 보관장소 제공(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11월 이후 중소기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출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악화된 물류난은 중소기업 수출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 87.6%가 이번 물류난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부의 단기적인 선박 확보 및 운임 지원 대책 외에도 장기적인 해운물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ESG 핵심정보 지역기업에 제공

전북특구, KOTRA와 ESG 콘서트 개최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기업 경영의 큰 화두로 부상한 ESG 관련 핵심 정보를 지역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북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를 2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전북특구본부와 KOTRA가 협업해 추진되는 행사로, ESG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전북특구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핵심 이슈, 수출규제 및 기업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글로벌 ESG동향 및 기업대응전략(법무법인지평 이준희 ESG센터장 등)’, ‘지방기업을 위한 ESG지원 방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본부장)’이란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ESG 관련 수출규제, 기업 준비사항에 대한 Q&A가 중점적으로 진행됐고, 해외진출 사업 연계전략과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져 참가기업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농촌자원사업 추진 성과 공유

농진청, 종합평가회 개최 전북농기원 우수사례 등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농촌자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평가회(이하 평가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 최소 인원(50명)만 참석할 수 있도록 시상식우수사례 발표를 현장에서 진행했고,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이날 우수사례로 전북농업기술원의 ‘농촌자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부곶감작목회(충남 금산)의 ‘일터개봉가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개선’ 발표가 있었다.

올해 농촌진흥청이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업해 추진한 농촌자원사업 중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과 ‘농작업 재해예방’이 정부업무평가에서 각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산물 및 가공 상품 실시간 소분 판매(라이브 커머스) ▲농촌형 외식 사업장 ‘농가맛집’ 대표 음식 바로요리세트(밀키

트) 제품 개발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등을 중점 추진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비대면 판로지원 성과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실천을 위한 시·군별 영농교육과 교육 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을 통해 농작업 환경 내 위험요소개선 및 사고예방 기여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2022년 농촌자원사업 중점과제로 ▲농산물 종합기공 체계 구축 및 가공창업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실천 ▲농촌자원 융·복합 상품 판매 확대 ▲농경문화 소득화 및 농촌체험 품질관리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등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 및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약용자원연구소 찾은 허태웅 농진청장 (사)는 농촌진흥청 제공

명품 도시개발에 주택건설 전문가들과 ‘맞손’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주택건설협회와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국내 주택업계의 대표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와 새만금 내 주택·도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와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우리나라의 주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앞으로 새만금의 명품 주거환경에 큰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한 마케팅, 주택 건설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힘을 모아 수변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인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뜻깊다”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혜택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친환경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유호상 기자

완주 도계에 마을자치연금 도입

국민연금, 완주군 등과 협약 체결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이어 두번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전국 제1호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해 완주군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완주군 도계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제고하고 취·휴게를 통해 실정된 ‘도계마을’과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여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연금 전문성을 활용한 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마을공동체 수익의 일부를 합산하여 마을 내 어르신들에게 2022년 상반기부터 연금을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도계마을’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이은 두 번째 마을자치연금 대상지이며, 이미 사업이 처음 실행된 성당포구마을은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성당포구마을 도입 결과, 주민과 언론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마을자치연금’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으로 확대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 성당포구마을, 완주 도계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 대상지를 지속 발굴·확대에 나가기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마을자치연금’ 사업 확대의 포문을 열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자치연금’ 사업으로 농어촌의 ESG 확산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전국 교육기관 등에 측량·전산장비 기증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지역 인재 양성과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위해 24억원 규모의 측량장비와 전산장비 등 총 2133대를 무상 기증했다.

기증처는 전국 자치단체의 대학교, 교육기관, 사회복지단체 등 10곳이다.

기증장비는 공사가 사용했던 장비로, 자체수리와 성능검사 등 재장비를 통해 교육기관의 실습과 소외계층의 전산장비 활용에는 지장이 없다.

이번 장비기증을 통해 교육기관은 자작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복지단체에는 고품질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상 기자

ESG 실천문화 확산·농수산물식품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식품통공사 전북본부-바이오진흥원 ‘맞손’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공동 전개 등 협력키로

한국농수산물식품통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류정현)는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과 ESG 실천문화 확산과 전북도 농수산물식품 경쟁력 강화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공동 전개 등 ESG경영 실천과 도내 농수산물식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아름다운 가게와 나눔문화 캠페인 전국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해왔던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국 사업소로 확대 운영한다.

공사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름다운 가게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과 주민들이 물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소에 기부함을 비치해 운영한다.

의류, 잡화, 도서, 소형 가전 등 기부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수익금 마련에 활용된다.

전북혁신도시 ‘자원순환 나눔 거점거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사는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호응에 따라 현재까지 약 1,500점의 기부물품을 수거하고, 재판매하며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펼쳐왔다.

박지현 사장은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소 확대운영을 결정했다”며, “자원 재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나가기”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립공원공단, 탐방로 혼잡도 안내서비스 제공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안전한 탐방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8개 국립공원(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치악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태백산)에 대해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혼잡도는 공원 탐방로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공원입구에 설치된 전자계수기를 통해 집계된 이용객수에 따라 혼잡도를 여유(초록색, 50% 이하), 보통(노란색, 50% 초과~100% 이하), 혼잡(빨간색, 100% 초과) 3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서비스가 폐쇄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진철 공단 탐방복지지장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국립공원 방문 전에 혼잡도를 미리 확인해 쾌적한 탐방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